

빛을 갚을 수 없는 딸의 삶: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에 나타난 매기의 부채

방미혜

I. 빛이 없는 부채감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The Mill on the Floss*)을 크게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자면, 그 가운데에는 「굴욕의 골짜기」(“The Valley of Humiliation”)라는 제목의 짙막한 장이 끼여있다. 이 네 번째 장에서 엘리엇(George Eliot)은 텔리버가의 파산과 그로 인해 홀로 괴로워하는 매기(Maggie Tulliver)의 절박한 모습을 담는다. 작품의 전반에서 어린 매기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재잘거리며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기다리는 “여자치고 너무 영특한”(Too 'cute for a woman; 1.2) 소녀였다. 자신의 머리를 잘라 버리고, 집시를 찾아 떠나는 등의 대범한 행동을 보였던 어린 시절과는 대조적으로, 「굴욕의 골짜기」에 나타난 매기는 파산한 가족의 어려움에 얽매어 그녀 내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 미지의 세계를 제시하는 책을 다양하게 탐독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이후 매기의 삶에 금욕적인 믿음을 불어넣은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à Kempis)의 책을 조우하는 장면 또한 이 장에 담겨있다. 필립(Philip Wakem)이나 스티븐(Stephen Guest)과의 로맨스가 시작되기 전, 아버지의 파산과 그에 따라 달라진 가족들의 상태는 매기를 일찍이 크게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이다.

엘리엇은 텔리버가의 파산을 묘사할 때, 열악한 경제 조건보다는 가족들이 겪는 심적인 가난에 집중한다. 파산과 빛은 단발적으로 벌어지고 끝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며, 빛을 갚아내는 동안 텔리버 씨의 가족들은 “하루 하루가 기대할 것 없이 지루하고 단조롭게 흘러가는”(day follows day in dull unexpectant sameness; 4.2) 시간을 견뎌낸다. 톰(Tom Tulliver)이 삶에서 느끼는 흥미는 “야심 있게 불행에 저항한다는 한 가지 통로”(the one channel of ambitious resistance to misfortune)로 집중되었고, 텔리버 부인(Mrs. Tulliver)은 한 곳에 앉지도 쉬지도 못한 채로 궁핍해진 생활의 당혹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텔리버 씨(Mr. Tulliver)는 집안의 소비를 늘 불만스러워하며 “말 없는 뚱한 우울”(sullen incommunicative depression; 4.2)의 상태에 빠진다. 톰이 첫 월급을 양철 통에 넣었을 때, 텔리버 씨가 겪는 우울은 조금 더 명확하게 드

러난다.

양철 통 안에 조금 모인 금화의 모습만이 물방앗간 주인의 눈에 희미한 기쁨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미약하고 일시적이었다. 왜냐하면 적은 저금으로 빛이라는 지긋지긋한 악몽을 떨쳐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 아마 그의 일생보다 더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기쁜 눈빛이 곧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능한 톰의 저축을 보탠다고 해도, 쌓여가는 이자까지 500 파운드가 넘는 적자는 한 주에 30실링씩 모아 갚기엔 너무나도 깊은 수렁처럼 보였다.¹⁾

The little store of sovereigns in the tin box seemed to be the only sight that brought a faint beam of pleasure into the miller's eyes,—faint and transient, for it was soon dispelled by the thought that the time would be long—perhaps longer than his life,—before the narrow savings could remove the hateful incubus of debt. A deficit of more than five hundred pounds, with the accumulating interest, seemed a deep pit to fill with the savings from thirty shillings a-week, even when Tom's probable savings were to be added. (4.2)

빛이라는 “지긋지긋한 악몽”은 텔리버 씨를 짓누르며, 이 악몽을 떨쳐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아득함은 그를 계속해서 절망하게 한다. 가족의 빛은 톰에게는 무거운 책임감, 텔리버 부인에게는 “도덕성에 대한 형틀”(moral pillory; 4.2), 그리고 텔리버 씨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명에다. 매기의 가족들은 빛을 진 상태를 그들의 영에나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여기며, 이것의 회복, 즉 과거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고단한 현재를 견뎌낸다.

다른 가족들이 빛을 견디는 와중에, 매기는 가족들과 같은 방식으로 빛의 고통을 겪어지지 못한다. 가족들이 음울한 일상에 익숙해지는 동안, 매기는 “영혼의 절대적인 굶주림”(the peremptory hunger of the soul)을 더 강하게 느끼며 “그녀의 내적인 자아”(her inward self)에 더 몰입한다(4.2). 아버지의 파산에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톰과는 달리, 매기는 이 상황에 무력한 관찰자일 수 밖에 없다. 가족의 파산이 매기에게 냉혹하게 보여준 현실은 딸 매기가 텔리버 가의 가장 부수적인 구성원이라는 점이다.²⁾ 텔리버 부인은 스스로 힘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어린 매기의 손이 일로 거칠어

1) 번역은 한애경, 이봉지의 국역본을 참고하되, 필자가 옮김.

2) 딸 매기가 가족의 경제 구조에서 배제된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작품의 시작부터 명확하게 드러난다. 서술자는 텔리버 부부가 아들 톰의 교육을 의논하는 장면으로 작품을 시작하는데(1.2), 텔리버 씨는 아들이 나중에 자신의 재산이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톰이 변호사들처럼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으로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란다. 톰이 어린 시절부터 잠재적

지지 않도록 한다. 부인은 자주 매기의 머리를 빗어주면서 어린 딸의 삶에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미래를 찾는다. 반면 아버지 털리버 씨는 매기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따금 괴로워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자라고 있다는, 그리고 금방 커서 여인이 될 거라는 생각에 몹시 몰두하곤 했다. 딸이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이 몰락했으니 결혼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게다가 그리티 고모처럼 딸이 가난하게 결혼할거라는 생각은 끔찍했다. 그건 무덤 속에서도 탄식할 일이었다. 어린 딸이 모스 고모처럼 애들과 일에 치여 고생을 하게 되다니.

... her father was bitterly preoccupied with the thought that the girl was growing up, was shooting up into a woman; and how was she to do well in life? She had a poor chance for marrying, down in the world as they were. And he hated the thought of her marrying poorly, as her aunt Gritty had done; that would be a thing to make him turn in his grave,—the little wench so pulled down by children and toil, as her aunt Moss was. (4.2)

다른 가족들이 과거에 만든 빛의 무게에 눌러 현재라는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 독특하게도 매기는 가족들에게 현재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존재이다. 미래를 생각하게 한다는 표현이 사뭇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자아내는 듯 하지만, 오히려 이 차이는 그녀가 가족 내에서 경제적 주체가 아니라 거래 가능한 사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즉, 톰, 아버지, 어머니 모두 빛을 갠아가는 채무자인데 반해, 매기는 결혼을 통해 다른 가족에게 영예롭게 넘겨야 하는 가보, 혹은 가구(a bit of furniture; 4.3)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매기는 가족들과 함께 과거의 빛을 갠아가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빛을 갠어질 수 없는, 미래에 넘겨져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공허한 시간”(her vacant hours; 4.3)을 보낼 수밖에 없다.

채무자가 아닌 매기가 파산한 가족들 사이에서 이 공허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바느질이나 독서를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매기는 소설 책을 뒤져보다가도, 그리고 “남성적인 지혜”(masculine wisdom; 4.3)에 다가서기 위해 학창시절 오빠 톰이 읽던 책을 꺼내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곧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곤 한다.

인 경제 주체로 인식되고 교육되는 반면, 매기는 이러한 의논 가운데 “자연의 작은 실수”(this small mistake of nature; 1.2)로 불쑥 방에 들어선다. 이 때 털리버 부인은 매기에게 이모께 선물할 조각보를 만들라고 시키는데, 매기는 조각보를 만드는 것이 “다시 이어집기 위해 천을 조각내는 짓”(tearing things to pieces to sew 'em together again; 1.2)이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비생산적이라고 불평한다.

책을 읽으며 창가에 앉아있는 때면, 왜인지 그녀의 눈은 멍하니 바깥의 햇빛을 향하곤 했다. 그리고는 눈물이 차올라서, 가끔 엄마라도 방에 없다면, 모든 공부 는 흐느껴 우는 것으로 끝났다. 그녀는 그녀의 운명에 반항했고, 이 반항의 외로 움과 엄마 아빠에 대한 발작적인 분노와 증오로 지쳐 쓰러지곤 했다. 그녀가 바 라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모님에게, 그녀를 억누르고 항상 뭔가 그녀를 저 지하는 식의 다름으로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대하는 톰에게, 이 분노와 증오는 마치 용암처럼 그녀의 애정과 양심 위에 넘쳐 흘렀다. 자기가 악마가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생각에 그녀는 소스라쳐 놀라곤 했다.

Somehow, when she sat at the window with her book, her eyes would fix themselves blankly on the outdoor sunshine; then they would fill with tears, and sometimes, if her mother was not in the room, the studies would all end in sobbing. She rebelled against her lot, she fainted under its loneliness, and fits even of anger and hatred toward her father and mother, who were so unlike what she would have them to be; toward Tom, who checked her, and met her thought or feeling always by some thwarting difference,—would flow out over her affections and conscience like a lava stream, and frighten her with a sense that it was not difficult for her to become a demon. (4.3)

자신이 제외되어 있는 논리 안에서 음울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매기는 외로 움과 함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부채는 짊어지지 못하는데 부채감 만을 떠안은 매기에게 이러한 가족의 현실은 그녀를 더욱 감정적인 차원으로 몰아맨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500파운드가 넘는 돈을 빚지고 이를 갚기 위한 고난에 몰두할 때, 그녀는 이 돈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외됨으로써 그녀의 삶은 그 자체 로 이중의 빚을 짊어지게 된다. 딸인 매기는 이미 가족의 빚을 짊어 진 오빠와 아버지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파산한 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양의 짐이 되어버린 매기는 실질적인 부채도, 갚을 길도 없기 때문에 더욱 통렬해진 부채감과 죄의식에 시달 린다.

현실 경제로부터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딸 매기와 어머니 텔리버 부 인이 가족 내에서 동일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성에게 허락된 (성 적) 교환 행위인 결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매기와 어머니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여성의 이윤 생산이 불가능한 시대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경제 행위는 결혼을 통 한 성적 교환과 이후의 출산으로 한정되었다. 즉, 텔리버 부인은 남편 텔리버 씨와의 결 혼 혹은 계약을 통해 들어온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가족 내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반면, 딸 매기는 아직 그 교환 과정을 치루지 않은 여성이다. 텔리버 씨는 텔리버 부인이 지나 치게 영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녀의 자매들 중 그녀를 골랐다”(I picked her from her sisters o’ purpose; 1.3)”고 말하며, 적당한 신붓감을 선택하여 취했다는 점

을 분명히 한다. 가족의 파산 이후, 혼수로 장만한 가구들과 식기들이 경매로 팔려나가고, 이와 함께 텔리버 부인도 생기를 잃어가는 장면을 통해 엘리엇은 텔리버 부인이 결혼 시장에서 취사선택되어 소비된 가구와 같은 존재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텔리버 부인은 텔리버 씨에게 소비된 여성으로서, 이후 가정의 소비를 담당하게 되며, 가족의 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에 반해, 매기는 이후 결혼을 통해 교환되기까지는 오빠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남아있는 과잉의 존재다. 아버지가 물방앗간을 운영하며 지주 계급에 속했던 그녀의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딸의 현실을 간과할 수 있었지만, 파산 후 매기는 그녀가 성적 교환을 하지 않으면 값을 길이 없는 가족에 대한 부채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매기의 독서와 공부가 내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매기가 자신의 갈망과 갈망에 대한 죄의식 사이에서 계속해서 괴로워할 때, 토마스 아 캠퍼스는 그녀에게 삶의 해답을 제시해 주는 듯하다. 토마스 아 캠퍼스의 글을 처음 읽은 순간을 서술자는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매기는 마치 갑작스러운 환영을 또렷하게 본 것처럼 숨을 길게 들여 쉬고 그녀의 슬 많은 머리를 뒤로 넘겼다. 바로 여기에 그녀로 하여금 모든 다른 비밀을 버릴 수 있게 하는 삶의 한 비밀이 있었다. 밖에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는 승고의 경지가 여기에 있었다. 여기, 최고의 선생님이 자신의 말이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 전적으로 그녀의 영혼 안에 있는 수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찰과 힘, 정복이 있었다.

Maggie drew a long breath and pushed her heavy hair back, as if to see a sudden vision more clearly. Here, then, was a secret of life that would enable her to renounce all other secrets; here was a sublime height to be reached without the help of outward things; here was insight, and strength, and conquest, to be won by means entirely within her own soul, where a supreme Teacher was waiting to be heard. (4.3)

토마스 아 캠퍼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을 설명할 가장 훌륭한 비밀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다. 서술자는 토마스 아 캠퍼스의 글에서 얻는 이 하나의 비밀이 매기가 세상의 다른 모든 비밀을 버려둘 수 있게 했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해답을 찾고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여유가 매기에게는 없으므로, 매기는 다른 모든 해답을 버려둘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한 가지 비밀을 얻는 데에서 만족한다. 토마스 아 캠퍼스가 제시하는 해답이 매기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이것이 “밖에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는”, “전적으로 그녀의 영혼 안에 있는 수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포기과 단념을 강조하는 아 캠퍼스의 해답은 매기에게 더 이상의 부채감이나 죄의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된다. 물론 서술자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버리고 포기하는 삶에 대한 매기의 믿음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부채감을 느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산물이며, 자기 삶에 빛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는 경제적인 욕망이기도 하다(4.3). 다른 가족들이 파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궁핍함과 절약을 견뎌낼 때, 현실적 경제에서 배제된 매기는 마음의 빛을 짊어짐으로써 마음 속의 경제 논리를 실행하는 경제 주체가 되고자 한다.

II. 마음의 경제 주체

다니엘 커틀(Daniel Cottom)은 프랑스 문학에 꾸준히 나타난 그리제트³⁾(the grisette)의 전통을 살피고, 프랑스와 달리 엘리엇을 포함한 영국 문학에는 “반-그리제트 전통”(anti-grisette tradition; 86)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한다. 그리제트는 프랑스 혁명의 즈음에 높은 지위나 재산 없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젊은 여자를 뜻하며, 보헤미안의 등장 이후에는 보헤미안 “학생들의 동반자”(the student’s companion)로 불렸다(75). 남성 예술가들의 매혹과 혐오, 이상화와 감상화 등을 통해 문학 속의 그리제트는 언제든 돌아서는 변덕스러운 사랑과, 무모할 정도의 후함과 소비, 걱정애 없애이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표상되었다(77). 커틀이 인용한 오귀스트 리카르(Auguste Ricard)의 소설 속 한 대목은 그리제트가 그려지는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소설 속에서 그녀는

아직 젊고, 예쁘고, 생기 넘쳤으며, 사이가 안 좋은 그녀의 애인을 방금 버리고 떠나는 참이었다.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채로, 그녀의 묶인 희망과 유희함 그리고 독립에 행복해하며,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대해선 개의치 않고, 가벼운 마음과 편안한 도덕성을 지닌 자유분방함으로 미래를 향해 미소 지었다.

who, fresh, pretty, and still youthful, has just abandoned a lover with whom she did not get along and, free of all ties, happy in the hope, the gaiety, and the independence that is her lot, disengaged in the present, unconcerned about the past, smiles at the future with all the abandon of her light heart and easy morals. (79, Cottom 재인용)

- 3) 그리제트(the grisette)는 노동 계급 출신으로 가족을 떠나 공장이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는 젊은 여성들을 특정 부류로 구분하는 명칭이다. ‘the grisette’라는 명칭은 여직공들이 주로 칠푼하고 낡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회색을 뜻하는 프랑스어 ‘grise’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의 특수한 연애 방식과 경제 생활 때문에 그리제트에 대한 번역이 “(다른 직업이 있고) 아르바이트로 매춘을 하는 젊은 여자”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커틀이 주장하듯 이들의 연애는 매춘(prostitution)과는 엄연히 달랐다. 국어에 맞는 번역어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발음을 옮긴 “그리제트”로 부르기로 한다.

커텀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분방함, 특히 “경제적 무분별함”(economic unreason; 78)이 젊은 그리제트를 더욱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제트의 매력의 핵심이었다고 말한다. 작품 안에서 그리제트는 그녀의 젊은 시기가 지난 후에, 화려했던 과거에 발목이 잡히고, 결혼의 실패와 경제적 파산으로 비극적으로 죽는 감상적 결말을 맞는다. 그러나 커텀은 노동과 저축, 소비와 같은 경제 논리를 무시하며 삶에서 생기 넘치는 현재의 순간을 다 써버리는 그리제트의 무분별함이 곧 “혁명의 열망과 혁명 이후의 목적 없음이 절충된 산물”(compromise formation between revolutionary aspirations and post-revolutionary aimlessness; 85)이라고 설명한다.

스티븐 크레인의 소설 제목인 『거리의 여인 매기』(*Maggie: A Girl of the Streets*)를 비트는 『거리의 여인이 아닌 매기』(“*Maggie, Not a Girl of the Streets*”)라는 그의 글 제목이 암시하듯, 커텀은 매기가 그리제트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리제트가 되지 못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독립하여 생계를 꾸리려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향유하는 예술가에 준하는 필립과 스티븐과의 로맨스를 겪으며, 이 로맨스로 집을 나서 달아나기도 하는 매기의 삶은 커텀의 지적대로 그리제트의 일생을 많이 닮아있다. 그러나 매기는 자신의 과거를 구성하는 가족과 집으로 끊임없이 돌아온다. 커텀은 엘리엇이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을 쓰며 “그리제트가 그녀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집어 삼킨 채, 즐거움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잊어버리고, 경제적 합리성에 굴복하여 집에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She demanded that the grisette surrender her happiness, swallow her pride, forget about the very notion of fun, bow to economic rationality, and return to her home)고 요약하고, 엘리엇이 “그리제트로 표상되는 독립적인 욕망의 근대적 세계를 의무, 책무 그리고 체념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세계로 바꾸어 놓았다”(did Eliot) transform the modern world of independent desire represented by the grisette into the traditional world of duty, obligation, and resignation; 88)고 비판한다. 커텀에게 그리제트의 불합리함은 “정치적 경제에 대한 완전한 무시”(the utter disdain for political economy)이자 “저항”(protest)인데 반해, 자신의 욕망에 조심스러운 매기의 부채감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굴복으로 치부된다.

커텀은 엘리엇이 매기의 삶을 그리며 주지하는 특정한 태도를 그져 “정치적 경제의 전제”(the premises of political economy; 86)에 대한 지나친 의식으로 국한시킴으로써, 엘리엇에 대해서도 그리고 매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을 내놓는다. 이미 앞에 장에서 설명했듯, 매기가 보여주는 체념의 삶은 독립에 대한 매기의 치열한 열망이 찾은 한 가지 방법이며, 이런 삶은 매기가 “자존심을 삼켜 버리도록” 하기 보다는 경제적 독

립을 얻음으로써 오히려 그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한다. 경제 논리에 대한 “저항”(그리제트) 혹은 “순응”(매기)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내놓는 커팀은 그리제트를 예술의 대상으로 삼았던 다른 남성 보헤미안들처럼 ‘탈피’, ‘탈출’, ‘자유로움’과 ‘목적 없음’ 등의 단어가 주는 특정 이미지에 스스로 매혹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제트에 대한 커팀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본 것은, 그리제트의 전통이 하나의 대척점으로써 매기가 하지 않고, 거부하는 행동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커팀이 그리제트를 설명하는 구절에는 흥미롭게도 “약속”(promise)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인다. 무분별한 생활의 그리제트가 하는 “행복에 대한 약속”(promise of happiness; 78)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안정적이지 않다. 커팀은 사회의 역사와 억압적인 문화의 태도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뛰어 넘어 자신만의 행복을 그리는 그리제트를 두고, “타협하지 않는 약속을 하는 문화적 인물”(a cultural figure of uncompromising promise; 78)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약속” 특히 영어 ‘promise’는 한국어로 약속/기약/장래성 등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며 시간적으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약속은 과거에 수행한 말화 행위를 지키려는 현재의 노력을 의미하면서도, 먼 미래가 제시하는 장래 혹은 기약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제트에게 이 “타협 없는 약속”이란 애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선언했다가도 일시적인 변덕만으로 그를 버릴 수 있는 약속, 즉 약속을 한 상대방의 마음이나 처지에 개의치 않는 약속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녀는 무분별한 경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현재가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는 불안에 떨지 않고, 행복의 장래성을 믿는다. 이 때 그리제트가 꿈꾸는 “행복의 기약/장래성”은 그것이 오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유지하는, 불가능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행위다. “행복에 대해 영원히 깨어진 기약”(the ever broken promise of happiness; 78 Cottom 재인용)이라는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설명이 포착하듯, 충실하지 않은 사랑을 자신의 신념을 삼는 그리제트에게 이러한 약속과 장래는 깨진 상태로만 존재한다. 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독립과 유쾌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기약은 깨어졌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형태로 남아있다. 그리제트의 “타협하지 않는 약속”(uncompromising promise)은 약속의 상대방 혹은 기약하는 대상과 함께(com) 약속(promise)하지 않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약속을 통해서 그리제트는 과거로부터도 그리고 미래로부터도 놓여나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젊음을 발산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기는 약속의 구속력을 강하게 느끼며, 동시에 약속을 두려워한다. 매기가 톰의 토끼를 키우는 것을 잇는 바람에 토끼들이 다 죽게 된 사건은 어린 매기로 하여금 약속의 구속력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여기서 약속의 구속력이란 망각이 다른 생물을 죽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윤리에 기반을 한 경고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글쎄... 그런데 톰, 엄마가 나한테 지갑에서 이 반-크라운이랑 육펜스를 꺼내 오빠 주머니에 넣고, 그 돈을 써서 더 많은 토끼를 사도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토끼? 난 더 필요 없는걸”

“아, 그런데 톰, 개네는 모두 죽었어.”

톰은 가던 걸음을 즉시 멈춰서서 매기를 돌아보았다. “그럼 너가 먹이주는 걸 잊었고, 해리도 잊어버렸단 소리아?” 그의 얼굴 빛이 잠시 고조되었다가 곧 가라앉았다. “해리 녀석 혼을 내서 내쫓아 버려야지. 그리고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매기. 너는 내일 나랑 낚시도 못 갈거야. 내가 말했지 매일 토끼들을 보고 살피라고.” 그는 다시 걸었다.

...

“오, 톰. 그건 너무 잔인해” 매기가 울며 말했다. “나는 오빠가 뭘 잊었다고해도 오빠를 용서했을 거야. 나는 오빠가 한 일이라면 개의치 않고, 오빠를 용서하고 사랑했을거야.”

“그래, 너는 멍청하니까. 그리고 나는 절대 뭘 까먹진 않아. 난 안 그래.”

“Well, but, Tom—if mother would let me give you two half-crowns and a sixpence out of my purse to put into your pocket and spend, you know, and buy some more rabbits with it?”

“More rabbits? I don’t want any more.”

“Oh, but, Tom, they’re all dead.”

Tom stopped immediately in his walk and turned round toward Maggie. “You forgot to feed ‘em, then, and Harry forgot?” he said, his color heightening for a moment, but soon subsiding. “I’ll pitch into Harry. I’ll have him turned away. And I don’t love you, Maggie. You sha’n’t go fishing with me to-morrow. I told you to go and see the rabbits every day.” He walked on again.

....

“Oh, Tom, it’s very cruel,” sobbed Maggie. “I’d forgive you, if you forgot anything—I wouldn’t mind what you did—I’d forgive you and love you.”

“Yes, you’re silly; but I never do forget things, I don’t.” (1.5)

제이(Elizabeth Jay)는 해리를 욕하는 루크의 말과 위의 대목을 함께 예로 들며, 이 사건을 통해 매기가 망각이 곧 여자나 하인, 어린 아이와 같은 낮은 사회적 지위와 부족한 도덕성의 지표가 됨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한다. 제이의 해석에 따르면, 매기의 “훈련되지 않은 영혼”(untrained soul)은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즉 책임감 있는 추정과 단순한 본능에서 도덕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감정’을 결합하도록”(to combine rational, and therefore responsible, calculation of consequences with ‘feelings’ that are capable of being morally distinguished from mere ‘instinct’; 364) 배워가는 중이

다. 그러나 제이의 설명은 매기가 위의 에피소드로부터 깨우치게 되는, 약속이 부과하는 진짜 의무에 대해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 약속은 단순히 기억과 합리적 책임감이 아니라, 약속하는 상대가 기대하는 바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여 꾸준히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매기는 톰에게 죽은 토끼에 대해 말하기 전에 토끼를 다시 사주겠다고 제안한다. 제이를 비롯한 독자들에게 이런 매기의 행동은 “혼련이 덜 된 영혼”의 무책임한 냉담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토끼가 얼마였는지?”라는 매기의 질문에 톰 또한 즉시 “이 반-크라온에 육펜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톰에게도 토끼가 곧 화폐 가치로 계산 및 치환이 가능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고 토끼를 사주겠다는 매기의 제안은 냉담함이 아니라 자신이 일으킨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제스처다. 그러나 매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게도, 이 약속은 손해와 배상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며 기대를 일으킨 상대방의 마음과 실망감에 대한 처리까지도 요구한다. 토끼를 다시 사준다는 매기의 제안에는 아랑곳 않고, 죽어버린 토끼들이 너무나 소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령이 기대했던 행위를 매기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톰은 분노한다. 매기가 한번도 사달라고 한 적이 없는 낚시바늘을 들먹이며, 톰은 자신이 기대하는 바와 상치받은 바에 대해 매기에게 강력하게 호소한다. 톰은 토끼들의 죽음과 그에 대한 슬픔에서 분노하기 보다는, 매기가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배신감에 화를 낸다. 매기는 톰의 분노와 냉담함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항상 착하게 굴고, 항상 기억하겠다”(I will always be good—always remember things; 1.5)는 또 다른 약속을 한다. 토끼를 다시 사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매기는 계약자의 마음으로 태만으로 일으킨 손해를 배상하려 할 때, 톰은 매기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그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음을 주지시킨다.

위의 예가 보여주듯, 매기는 비교적 쉽게 많은 것들을 망각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암묵적이고 복잡한 약속의 경제에 참여하게 된다. 유년기부터 어린 매기는 현실적 성취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마음의 경제로 내몰리게 되는데, 특히 전통적 규범에서 자주 벗어나는 열정 많은 소녀였던 매기는 이 마음의 경제에 가장 처절한 실패자가 된다. 내몰린 세계에서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로 인해 매기는 마음의 경제와 약속의 순환 논리에 점차 예민해졌다. 토끼에 관한 매기와 톰의 대화에서, 매기가 지갑에 있는 돈으로 토끼 값을 주겠다는 말을 처음 꺼내자, 톰은 “이 멍청아, 네 돈 따위는 원하지 않아. 난 남자니까, 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어.”(“I don’t want your money, you silly thing. I’ve got a great deal more money than you, because I’m a boy.” 1.5)라고 말한다. 이처럼 딸 매기가 화폐를 이용해 현실적 거래를 하려는 것은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 당해버리고, 매기는 마음의 경제에서 오빠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사랑을 얻어야 하는 여동생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나 매기와 톰의 관계

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듯, 매기가 주는 애정과 관대함은 돌아오지 않고, 그녀가 원치 않는 것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곤 했다. 머리를 자르고 집시를 따라가는 등의 행동에서 용감함과 똑똑함은 인정받지 못하고, 매기는 그녀의 기대를 빗나간 비난과 실망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매기가 예상했던 상호 호혜의 순환은 언제나 어그러질 뿐이었다. 매기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대에 계속 어긋날 때마다, 자신이 어떤 다른 행동 방식을 알았다면 이 어긋남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책한다. 엘리엇은 매기의 자책과 외부의 기대에 대한 기민한 의식이 여자 아이로 살아가는 동안 교육되고 강화된다는 점을 그녀의 어린 시절을 통해 밝히며, 이를 톰과의 삶과 분명하게 대조한다. 예를 들어, 자신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시 한다 해도 똑같이 했을거야.’ 톰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늘상 이런 방식으로 보았고, 반면에 매기는 항상 자기가 달리 행동했더라면 하고 바랐다.”(“I’d do just the same again.” That was his usual mode of viewing his past actions; whereas Maggie was always wishing she had done something different. 1.6) 간쯔(Melissa J. Ganz)는 매기가 아버지나 톰과 달리 “구속력이 있는 약속의 존재에 대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글로든 말이든, 증명이 되든 안되든) 사인을 포함하는 약속의 넓은 개념”(a broader conception of promises that includes all signs - written and spoken, witnessed and unwitnessed - that raise others’ expectations concerning the existence of binding commitments; 573)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정받고 싶지만, 여자 아이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슬한 실망을 마주했던 매기는 사회가 암묵적으로 약속한 호혜 방식을 잘 알고 지키는 자만이 기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칙을 배우게 된다. 보이지 않는 약속과 기대의 틀은 매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야 하는 것이며, 이 틀에 맞지 않게 행동할 경우 매기는 상대에게 주는 애정과 관대함을 돌려받지 못한 채 항상 파산한 상태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삶에 대한 부채감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기대에 억눌리는 매기에게 필립은 상호 계약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한다. 필립이 매기에게 책을 제공하고 그녀의 감수성과 지적 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매기는 필립에게 필요한 다정함과 애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필립과 매기의 밀회는 강요가 아니라, 필립의 끈질긴 설득과 그에 따르는 매기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매기는 책을 주고 받고, 말을 주고 받는 필립과의 교환적인 관계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환과 계약을 상정한다는 것을 느낀다.

가끔 필립을 만나 우정을 이어 가는 것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로 여겨졌다. 그녀가 발견한 체념의 행복을 그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상님의 목소리는 달콤한 음악처럼 그녀를 유혹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어긋나, 그녀가 그 동안 복종하기 위해 배워 온 다른 목소리가 긴박하고 단조로운 경고를 보내왔다. 그러한 만남은 비밀을 뜻한다고 경고였다. 즉 그것은 그녀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탄로가 나면 분노와 고통을 초래할 것이며, 거의 이중성에 가까운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신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걸 의미했다.

It seemed to her inclination, that to see Philip now and then, and keep up the bond of friendship with him, was something not only innocent, but good; perhaps she might really help him to find contentment as she had found it. The voice that said this made sweet music to Maggie; but athwart it there came an urgent, monotonous warning from another voice which she had been learning to obey,—the warning that such interviews implied secrecy; implied doing something she would dread to be discovered in, something that, if discovered, must cause anger and pain; and that the admission of anything so near doubleness would act as a spiritual blight. (304/5.1)

위의 구절에서 매기는 필립과의 ‘우정’이 들통날 경우, 이 비밀이 결국 가족을 분노하게 할 것이며, 가족을 속이는 것이 자신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듣는다. 동시에 매기는 필립과의 만남이 그리고 이 만남의 비밀이 결국 필립과의 관계를 위협하고 비밀스러운 로맨스로 만든다는 것 또한 감지한다. 필립과의 밀회가 의미하는 이중성은 가족을 속이는 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녀 자신을 속이는 데에서도 발생한다. 필립과의 밀회가 탄로났을 때, 이 둘의 만남은 결혼을 전제한 연인의 만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립과의 만남이 탄로나고 그것이 애정에 따른 연인의 밀회로 회자될 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말은 필립과의 결혼이다. 실제로 필립은 매기에게 결혼 의사를 던지시 밝히고, 매기의 동의를 얻어내려 애쓴다. 그러나 매기는 이러한 애정과 희망에 동조는 하면서도, 동의를 의사는 끝까지 밝히지 않는다. 필립과 매기의 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루시는 필립과 매기를 결혼 시킬 계획을 짜야 겠다며, 둘의 결혼이 “나의 불쌍하고도 불쌍한 매기의 시련의 아름다운 결말”(a pretty ending to all my poor, poor Maggie’s troubles)이지 않겠냐고 묻는다. 이에 “매기는 웃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한기를 느낀 듯 몸을 떠다.”(Maggie tried to smile, but shivered, as if she felt a sudden chill; 388/6.3) 필립과의 결혼을 생각할 때 매기가 느끼는 한기와 공포는 양방이 한쪽 면에서 부족하니 서로 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며 사는 것이 좋은 교환이 될 것이라 판단하는 사회적 잣대의 잔인함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원수 지간을 핑계 삼지 않으면 비밀스런 만남 이후 아마도 거절이 불가능한 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밀회와 결혼의 구속력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톰의 모욕

적인 말들에 치를 떨면서도, 필립을 만날 수 없게 된 매기는 “필립과의 강요된 헤어짐에서 때때로 흐릿한 안도의 그림자를 의식한다.”(now and then conscious of a certain dim background of relief in the forced separation from Philip; 348/5.6) 필립과 밀회를 약속했을 때부터 목소리가 준 경고, 즉 매기의 동의와 상호 약속으로 성사된 이 비밀스런 만남이 곧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대와 그것의 구속력 안에 그녀를 빠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드디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매기는 이미 자신이 짊어진 가족에 대한 의무를 변명 삼아, 필립이 부과하는 또 다른 무게를 기민하게 회피했지만, 스티븐이 주는 매혹에는 조금 더 힘들어한다. 필립과의 로맨스가 광범위한 개념의 약속이 그녀에게 원치 않는 빛을 지울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에 정리해야 했다면, 스티븐과의 로맨스는 그녀의 바깥이 아니라 그녀 내부의 욕망, 자신의 몸이 느끼는 섹슈얼리티와 싸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매기는 “차라리 15살 때 죽을 걸 그랬어요. 그 땐 포기하는 것이 참 쉽게도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어려워요”(I wish I could have died when I was fifteen. It seemed so easy to give things up then - it is so hard now; 6.11)라며, 체념의 방식을 터득한 그녀에게도 스티븐이 주는 유혹은 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다고 말한다. 처음에 매기는 스티븐에게 느끼는 성적 매력에 흔들리다가도, “그녀를 뒤흔드는 어떤 것도 저항하는 자랑스러운 자기 절제의 감각”(a sense of proud self-command that defied anything to agitate her; 6.7)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그러나 스티븐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이 때, 매기는 루시의 집에서 머물며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물론 부채감에 시달리지 않는 정신적인 휴식과 여유를 만끽하는 중이었다. 환상과 미래를 그리는 책을 포기하고, 토마스 아 켐피스라는 과거에서 온 목소리에 집중했던 매기는 던 이모부네 집에서는 현재의 순간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음악을 향유한다. 매기는 스티븐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순간에는 마치 그리제트처럼 미래의 고통도 개의치 않고 현재가 주는 즐거움에 맘껏 취한다.

그녀의 눈과 뺨은 아직도 춤출 때의 어린아이 같은 열정으로 빛났다. 그녀의 온 몸은 기쁨과 다정함으로 충만했다. 심지어 닥쳐올 고통조차 쓰라릴 것 같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이란 쾌락과 고통을 넘어선 통렬하게 떨리는 의식이라고 생각되었기에, 그녀는 고통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하루의, 마지막 밤에는, 냉랭하게 그녀를 잡아먹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매기는 현재의 따뜻함 안에 제약 없이 펼칠 수 있었다.

Her eyes and cheeks were still brightened with her childlike enthusiasm in the dance; her whole frame was set to joy and tenderness; even the coming pain could not seem bitter,—she was ready to welcome it as a part of life, for life at this moment seemed a keen, vibrating con-

sciousness poised above pleasure or pain. This one, this last night, she might expand unrestrainedly in the warmth of the present, without those chill, eating thoughts of the past and the future. (6.10)

스티븐이 주는 매혹은 매기를 빈곤과 부채감에서 벗어나게 해 줄거라는 구원과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필립이 제시하는 유혹의 성격과 부합한다.) 매기는 스티븐으로부터 상대와 함께 있는 순간의 즐거움, 의식의 떨림, 몸의 열기 등을 느끼며,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쳐낸다. 스티븐과 매기의 성적인 결합을 암시하는 보트 위에서, 서술자는 “그녀는 그 외 다른 것은 느끼지 못했고, 기억은 배제되었다.”(she felt nothing else. Memory was excluded; 6.13)고 언급한다. 스티븐이 매기에게 주는 것은 순간의 망각이며, 매기는 이 순간에 그녀를 과거의 가족에게 얽매이게 만들었던 부채감과 경제의 틀에서 잠시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기의 망각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모든 일은 보트가 물길을 흘러가듯,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스티븐의 설득을 매기는 얼마간 납득하지만, 꿈에서 성모 마리아인 루시를 태우고 필립과 톰이 성 오그(St Ogg)처럼 노를 저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쳐 깬다(6.14). 어린 시절 매기가 여왕을 꿈꿀 때마다, “오직 그 여왕은 루시의 모습을 한 매기 자신이었다”(only the queen was Maggie herself in Lucy’s form; 1.7)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매기는 이 꿈에서 자신이 탄 (혹은 타야 할) 배를 필립이, 그리고 결국에는 톰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본 셈이다.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의 필요를 동정심으로 도와줬던 성 오그 자리에 결국 톰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매기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사람, 즉 매기를 배에 태우고 노를 저을 사람이 스티븐이 아니라 톰이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⁴⁾ 뿐만 아니라, 스티븐에게 이별을 고하고 그의 끈질긴 설득에 저항하는 와중에 매기는 스티븐과의 로맨스가 완전한 망각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녀를 누군가의 소유물로 만들게 될 것 이란 걸 깨닫는다.

“그대여” 그는 그의 가장 깊고 부드러운 톤으로 그녀를 향해 기울인 채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대는 의미 나의 것이요. 세상이 그것을 알고 있고, 의무는 지금 이 사실에서부터 나와야해요. 몇 시간 후면 그대는 법적으로 내 것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불만을 갖던 사람들도 곧 항복할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불만에 대항할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 4) 이 꿈은 두 남매의 죽음의 모습을 그리는 예지몽이기도 하지만, 결국 성적인 욕망으로 함께 달아나기도 했던 로맨스의 상대인 스티븐의 위치에 톰을 대응한다는 점에서 매기의 근친상간적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오빠 톰을 꺼안고 물 속에 빠지는 매기의 죽음 또한 그녀의 욕망의 완성(consumma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녀에게 가까이 있는 얼굴을 겁에 질린 모습으로 보며, 매기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녀는 소스라쳐 놀라 다시 창백해졌다.

“아, 나는 못하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Dearest,” he said, in his deepest, tenderest tone, leaning towards her, and putting his arm round her. “you *are* mine now — the world believes it — duty must spring out of that now: in a few hours you will be legally mine, and those who had claims on us will submit — they will see that there was a force which declared against their claims.”

Maggie’s eyes opened wide in one terrified look at the face that was close to hers, and she started up — pale again.

“O, I can’t do it,” she said, ... (478, original emphasis)

스티븐과 로맨스에 얽히게 된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가 스티븐의 소유물이 되어 이로부터 다른 종류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말에, 매기는 질겁을 하며 이 로맨스의 구도로부터 필사적으로 빠져나간다. 매기는 결혼을 통해 누군가가 주장할 수 있는 소유물이 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며, 사회로부터 오해받고 소외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빛을 잃어지는 딸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선택한다.

커티의 말대로 매기는 그리제트가 될 뻔한 순간에 처하면서도 끊임없이 벗어나는 인물이지만, 이는 “경제적 합리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엘리엇의 건조한 리얼리즘의 결과가 아니다. 엘리엇에게 경제는 단순히 빛과 파산, 시장 경제의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환 행위, 특히 여성에게 허락된 로맨스와 결혼 등의 사회적 계약과 감정의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매기는 타인의 감정을 마주하고 그 영향을 주고 받는 마음의 경제에 예민한 주인공이다. 매기는 로맨스의 유혹에 충분히 매혹되면서도, 결국 로맨스에 함몰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빠와의 죽음을 택한다. 매기는 현실 경제에 무릎 꿇은 여주인공이 아니라, 로맨스가 수반하는 경제적 거래와 그 미래를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거부함으로써, 마음의 빛을 잃어진 딸의 삶을 스스로 택하는 독특한 경제 주체이다.

III. 분노의 선물

『플로스 강 의 물방앗간』은 자주 엘리엇의 가장 자전적인 소설로 평가되며, 작품의 서술 또한 매기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매리 앤 에반스(Mary Ann Evans)의 목소리로 추정되곤 했다. 그러나 유난히 이 작품의 서술자는 특정한 하나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걸음 떨어진 채, 특정 태도들이 진실한 면모만큼이나 언제나 진실하지 못한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독자에게 보여준다. 매기가 토마스 아 캠퍼스를 읽고 폭 빠지는 순간에, 서

술자는 토마스 아 켐피스의 글이 “강조체의 어투”(a tone of emphasis)로 쓰였다고 말한다. 서술자의 설명에 따르면, 여유와 호사가 있는 “좋은 사회”(good society)는 믿음이나 규율 따위는 개의치 않고 가벼운 아이러니를 향유하는 한편, 이 “좋은 사회”의 사치는 나라 전체의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의 삶은 빈곤과 음울함을 견뎌야 한다. 좋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동의 고단함을 견디기 위해 “열정”(enthusiasm)이 필요하게 되는데, “강조체의 어투”란 독자에게 열정을 고무시키는 어조를 말한다(4.3). 위와 같은 설명에서 서술자는 토마스 아 켐피스의 어투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매기의 고단함과 마음의 빈곤함을 이해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이 열정과 강조체 어투가 어떠한 잘못된 체계 안에서 발생하였고 동시에 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한다. 세인트 옥스 마을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매기에 대해서도 서술자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녀가 불평해도 되는 걸까? 길고 긴 속죄의 삶으로부터 그녀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오든 되는 걸까?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리하여 열정으로 지은 죄를 이타적인 인간의 사랑의 새로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삶에 있는대도?

But ought she to complain? Ought she to shrink in this way from the long penance of life, which was all the possibility she had of lightening the load to some other sufferers, and so changing that passionate error into a new force of unselfish human love? (7.5)

성인 전기(hagiography; 1)의 전통과 역사가 엘리엇의 서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여(Paul Yeoh)의 주장처럼, 매기는 마치 순교자처럼 고난의 삶을 견뎌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의문문과 “모든 가능성이 바로 이 속죄의 삶에 있다”는 과장을 통해 서술자는 매기를 성인으로 고양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순교의 서사가 내포하는 교환 경제를 드러내 보인다. 즉, 순교의 삶이 지키는 고난과 체념이 사실상 단순한 의미의 포기가 아니라, 가능성과 미래를 향한 열망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기의 고난이 끝없는 희생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것이 혹은 욕망의 대가는 아닌지 질문하며, 엘리엇의 서술자는 독자가 매기의 삶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찰의 폭을 열어둔다.

서술자의 태도가 이렇게 양가적인 뉘앙스를 보이듯, 엘리엇이 이 작품을 쓰면서 견지했던 입장은 대중에게 “강조체의 어투”로 삶의 강력한 믿음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헤일즈(Hayles)는 짐짓 모든 태도를 고려하는 듯한 서술자의 태도와 작가가 결정한 소설 속 세계의 기정사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이 “분노를 숨기면서도 드러내고, 뒤에 남겨두면서도 앞으로 넘겨버리는 복잡한 표현의 방식”(a com-

plex mode of expression in which anger can be both concealed and revealed, left behind and carried forward; 26-7)을 창조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매기는 자신의 절제를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성인의 경지에 다다른 듯하지만, 경지에 도달하는 절정의 순간을 통해 매기는 자기가 살았던 마을을 홍수와 함께 망가뜨리고 떠난다. 다시 말하자면, 매기의 죽음은 자신이 진 빛을 감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빛을 지운 사람에 대한 복수와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꿈에서 성 오그의 모습을 한 톼을 보았던 매기는, 자신이 톼을 구하기 위해 노를 짓는 성 오그가 됨으로써 톼에 대한 부채감을 해결한다. 삶을 부채감에서부터 구하고자 했던 매기의 노력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톼의 마지막 깨달음과 인정을 얻음으로써 보답받는다. 그러나 작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출은 다시 이 둘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고난의 보답이 돌아온 순간에 매기는 자신이 구원한 톼을 꺼안고 죽음을 맞이한다.

홍수와 죽음은 매기의 끝없는 노력과 의지를 한순간에 무화시키며, 이 작품의 비극성에 다른 힘을 부과한다. 허츠는 매기 자체가 열정에 대한 알레고리이며, 차고 넘쳐흐른 홍수처럼 여분의 힘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68). 즉, 부채감과 죄의식에 차있던 매기의 결핍은 노력에 대한 보답을 얻음으로써 채워지기보다는, 이 보답마저도 삼켜버리는 더 큰 힘에 휩쓸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는 텔리버 씨가 가족의 빛을 다 갚은 후, 웨컴에게 마지막 복수를 행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과 병치되기도 한다. 특히 매기는 기도 중 자기 발밑으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때,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이 홍수라는 것을 알아챈다.”(She was not bewildered for an instant - she knew it was the flood! 7.5) 매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빠르고 조용한 물살에 미끄러지듯 흘러가는”(glide along with the swift, silent stream) 순간은 스티븐이 그렇게도 설득했던 강물 위 보트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홍수에 톼과 휩쓸려가는 죽음이라는 걸 매기는 알고 있었다. 매기는 홍수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 자신의 부채감을 갚으며 경제적 순환을 완성하는 듯 하지만, 사실 그녀는 홍수가 동반하는 여분의 힘을 통해 이 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논문이 중심으로 다루었던 장 「굴욕의 골짜기」와 매기의 죽음을 담은 「마지막 갈등」(“The Last Conflict”)은 서술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유사점을 보인다. 두 장에서 모두 서사는 진행되다가 중간 지점에서 멈춰 다시 과거의 맥락으로 돌아가며, 중반부부터 이 회귀된 서사가 진행되어 다시 장의 시작 부분의 시점으로 이어져 돌아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굴욕의 골짜기」에서 매기는 톼의 학창 시절 책을 읽다가 밥(Bob Jakin)을 맞이하지만, 이 서술은 갑자기 과거에 매기가 다른 공부를 시도하고 포기했던 시절로 돌아갔다가 밥이 다녀가고 난 “오늘 오후”(t(T)his afternoon; 4.3)로 이어진다. 「마지막 갈등」 또한 매기가 밤에 잠들지 못한 채 홍수를 알아채는 것으로 시작하였다가, 켄

박사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잃고 스티븐의 편지를 받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간 뒤 다시 홍수를 맞이하는 순간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원을 그리고 다시금 나아가는 서술의 모습은 구원했다가 곧 죽음을 맞고, 마음의 경제가 완성되었다가 다시 무너져버리는 결말의 형태와 유사하다.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경제와 삶이 모두 상호 증여를 기본으로 하는, 원의 순환을 표상할 때, 선물이라고 인식되어서도 안 되고, 그에 대한 대응과 보답이 없는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일방적 증여를 뜻하는 선물만이 이러한 순환적 경제의 틀을 부수는 의미있는 순간을 제시한다고 설명한다(7-8). 계속해서 돌려주고 돌려받는 심적/물질적 경제의 고리 안에서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매기에게, 그리고 자신의 '재능'(gift)을 알아주지 않는 세계에 끊임없이 무너졌던 매기에게, 홍수는 하늘의 선물처럼 내려와 그녀를 원 밖으로 구해주는 동시에 그녀를 대신해 세계를 망가뜨려 준다. 엘리엇은 마음의 경제의 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매기의 열망을 보듬어 주면서도, 가정의 딸들을 마음의 경제로 내모는 세계에 대한 분노를 하늘과 자연이 내려준 선물을 통해서 표출한다.

Works Cited

Primary Text

Eliot, George. *The Mill on the Floss*. Oxford: Oxford UP, 2008.

조지 엘리엇.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 한애경 이봉지 옮김. 민음사, 2009.

Secondary Text

Cottom, Daniel. "Maggie Not a Girl of the Streets." *Novel: A Forum on Fiction* 41.1 (2007): 73-98.

Derrida, Jacques. "The Time of the King." *Given Time: I. Counterfeit Money*. Chicago: U of Chicago P, 1992. 1-33.

Ganz, Melissa J. "Binding the Will: George Eliot and the Practice of Promising." *ELH*, 75.3 (2008) 565-602.

Hayles, N. Katherine. "Anger in Different Voices: Carol Gilligan and *The Mill on the Floss*." *Signs* 12.1 (1986): 23-39.

Hertz, Neil. "George Eliot's Life-in-Debt." *Diacritics* 25.4 (1995): 59-70.

Jay, Elisabeth, "'Be Sure and Remember the Rabbits': Memory as Moral Force in the Victorian Bildungsroman." *Literature & Theology*, 24.4 (2010): 360-77.

Yeoh, Paul. "Saint's Everlasting Rest: The Martyrdom of Maggie Tulliver."
Studies in the Novel 41.1 (2009): 1-21.

ABSTRACT

The Daughter with the Unpayable Debt: Maggie Tulliver's Debt in *The Mill on the Floss*

Mihye Bang

The Mill on the Floss reveals the debt-bounded life of the heroine and her anguished life. After her father's bankruptcy, Maggie, the daughter of the Tullivers, becomes conscious of her economic dependence to her family and her exclusion from the family's debt. While other family members share the burden of Mr Tulliver's economic collapse, Maggie cannot but spend vacant time as a daughter burdened with the unpayable debt. Without any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real economy as a woman, her sense of debt gets intensified in her psychic realm. Although the daughter's debt is socially presumed to be paid by making a sexual exchange, that is, her marriage to another family, Maggie escapes from the romantic relations she has with Philip and Stephen. Having grown keen to the economy of mind under her family's expectations and their severe reproaches, she recognizes the implicit threats posed by sexual exchange and therefore, rejects it. By being an indebted, unmarried daughter, Maggie insists to live as an economic agent who is indebted, but not as an exchangeable object. In the end of the novel, Maggie's self-torture and renunciation under the indebted mind conclude with the explosive flood. While she seems to complete her indebtedness as repaying her debt to her family by rescuing Tom, her death with the symbolic flood destroys Tom and St Oggs. Maggie's desperate efforts to repay her debt not only succeed in putting her insolvency to a termination, but also devastating the torturing society and its suffocating circle of the economy.

Key Words George Eliot, *The Mill on the Floss*, Sense of Debt, Women's Economic Agency, Economy of Mind